



정구 전 종목 석권, 이제 눈앞에 왔다! 2일 인천 열우물테니스장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여자정구복식 결승에서 우리 선수끼리 맞붙어 주옥-김애경 조가 김지연-윤수정 조를 게임스코어 5대1로 이기고 금메달과 은메달을 사이좋게 나눠가진 뒤 서로 격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정구에 걸린 금메달 7개 중 이미 5개를 획득해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다.

인천 | 임민환 기자 minani84@donga.com 트위터 @minani84

한국정구 金 5개…전종목 석권 보인다

여복 김애경-주옥, 남복 김동훈-김범준 나란히 金…7개종목 중 5개 올릴

하드코트 사전적응·트레이너 코치 영입 등 치밀한 전략과 적극적 지원이 만든 쾌거
4일 남녀단체 마지막 금사냥…씩씩이 기대

벌써 금 5개! 전 종목 석권을 꿈꾼다.
정구가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효자종목으로 떠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금메달 5개를 목에 걸었고 남녀 단체전에서 우승하면 7개 전 종목 석권이 된다.

●정구 금 5개 목에 걸어…남은 건 전 종목 석권
정구대표팀은 남자단식 김형준(24·인천시청)과 여자단식 김보미(24·안성시청)의 금메달,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혼합복식의 김범준(25·문경시청)-김애경(26·NH농협은행)의 금메달에 이어 2일 열린 남녀복식까지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일 열리는 남녀 단체전에서 2개 남은 금메달을 목에 걸면 이번 대회 전 종목 석권이 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2일 인천 열우물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복식 결승은 한국팀끼리 맞붙어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승부였다. 결과는 김애경-주옥(25·NH농협)이 김지연(20·육천구청)-윤수정(25·안성시청)에 게임스코어 5-1로 이겨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걸었다. 김애경은 혼합복식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

이어 열린 남자복식 결승에서 김동훈(25·문경시청)-김범준 조는 대만 린팅헨-리치아홍 조를 맞아 게임스코어 5-2로 이겨 5번째 금메달을 한국팀에 안겼다. 김범준도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하드코트에 적응하라” 치밀한 전략 큰 몫
정구의 돌풍은 단순히 홈 어드밴티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구대표팀은 아

시안게임 정상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숨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진 값진 금메달이었다.

지난 5월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92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30억원을 들여 건설된 국제정구장이 아닌 2.5km 떨어진 영강체육공원에서 경기를 치렀다. 최고시설을 자랑하는 경기장을 외면한 이유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정구가 클레이코트가 아닌 하드(케미컬)코드에서 열리기 때문이었다. 정구는 클레이코트에서 열린 2002부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7개를 싹쓸이 했지만 하드코트에서 치러진 2006도하, 2010광저우에서는 각각 금메달 2개에 불과했다.

최근 정구의 국제무대 흐름도 더 많은 나라의 참가를 이끌기 위해 하드코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한정구협회는 과감하게 올 한해 열린 국내대회 모두를 하드코트에서 치러 선수들의 적응을 이끌었다.

●트레이닝 코치 영입…과학적 체력훈련 효과
아시안게임을 함께 준비한 트레이닝 코치 영입도 금메달 수확에 큰 힘이 됐다. 예산이 많지 않은 실업팀 종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보미는 “발목이 좋지 않았는데 트레이닝 코치가 주변 근육을 발달시키는 근력훈련을 집중적으로 이끌어줘 큰 효과를 봤다”며 “정구는 하루에 많게는 7차례씩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다. 트레이닝 코치가 경기 중간 근육의 피로회복 등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정구대표팀은 지난 6월 대표팀 상비군 6명을 더 선발해 하루 8시간 이상 강도 높은 실전 훈련을 했다. 그동안 약했던 하드코트에서 더 강하고 빠른 공격을 펼치기 위한 체력훈련이었다. 그 결과 인천아시안게임 5개의 금메달에 입맞추는데 이어 전 종목 석권이라는 역사를 눈앞에 봤다.

인천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여자배구, 20년만에 금빛미소

4연속우승 중국 3-0으로 꺾고 금메달
남자배구는 일본에 1-3…결승패 좌절

한국여자배구가 1994히로시마아시안게임 이후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섰다.

이선구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대표팀은 2일 인천 송림체육관에서 벌어진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김연경(26득점) 김희진(16득점)의 대활약으로 세트스코어 3-0(25-20 25-13 25-21) 완승을 거뒀다.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먼저 두 세트를 따고도 홈 텃세에 눈물을 흘렸던 우리 선수들은 4년을 기다린 끝에 통쾌하게 복수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부터 4대회 연속우승을 했던 중국은 한국의 초반 기세에 눌려 준우승에 그쳤다.

1세트 시작하자마자 김연경이 연속 득점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박정아가 레프트에서 활발한 공격을 펼쳤고 김희진은 현란한 이동

공격으로 김연경을 도왔다. 중국은 센터 양니의 높은 타점, 장창닝의 파워 공격과 류 안한의 백어택으로 반격했다. 박정아의 대각선 공격으로 먼저 20점에 오른 한국은 세트를 이다영으로 교체해 중국의 블로킹을 혼란시킨 뒤 중국의 서브미스와 수비방식을 틈타 22점까지 달아났다. 24-20에서 김연경이 멋지게 세트를 마무리했다.

2세트는 중국이 리드를 잡았다. 준결승 한일전과는 달리 우리 수비가 상대의 공격을 쉽게 막지 못했고 간혹 김해란의 멋진 디그 뒤 반격기회에서도 득점이 쉽지 않았다. 한국은 8-8에서 김희진 이동공격과 블로킹으로 흐름을 바꾸는 등 6-8에서 7연속 득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되찾아왔다. 한국은 23-13에서 김희진의 중앙공격과 블로킹으로 두 번째 세트도 따냈다. 3세트에 접어들자 중국의 반격이 거셌다. 3-8로 멀리 달아났다. 한국은 또다시 찬스에서 물고 늘어져 김희진의 이동공격과 블로킹, 이



‘20년 만에 보는 환한 금빛 미소!’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이 2일 인천 송림체육관에서 열린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중국을 3대0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상대 맨 꼭대기에서 환한 웃음을 터트리는 대표선수들의 표정이 금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다.

다영의 블로킹, 김연경의 3연속 백어택 등에 힘입어 역전에 성공으로 17-13까지 달아났다. 양효진의 블로킹으로 20점에 도달한 한국은 박정아의 연타로 매치포인트에 오른 뒤 24-20에서 김희진의 중앙송공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우리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은 뒤 태극기를 들고 코트를 돌며 기쁨을 만끽했고 멋진 다이빙 세리머니

나까지 보여줬다.

한편 이날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자배구 준결승에서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서브에 7개의 서브에이스를 내주며 세트스코어 1-3(19-25 25-18 18-25 23-25)으로 저결승진출에 실패했다.

인천 | 김종현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 @kimjongkeon

‘아시아 쿤’ 손연재, 이제 리우올림픽이다

‘리듬체조 왕국’ 러시아가 가장 큰벽
강심장으로 승부…사상 첫 메달 도전
하야카와·미나가와 뒤 신에 견제도

아시아 최정상이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손연재(20·연세대)의 시선은 이제 2016리우올림픽으로 향한다.

손연재는 2일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선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얻겠다”던 약속을 지켰다. 손연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년 뒤 열릴 리우올림픽을 향해 다시 고삐를 조인다.

손연재는 첫 올림픽 출전이었던 2012년 런던대회에서 개인종합 5위에 올랐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리듬체조에서도 놀라운 일이었다. 자신의 주특기인 리본과 볼에서 모두 3위에 올랐고, 후프에서도 4위로 선전했다. 곤봉

연기에서 곤봉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깜짝 메달 획득을 노려볼 수 있었을 정도였다.

올림픽은 아시안게임과 또 다른 무대다. 리듬체조의 왕국이나 다름없는 러시아선수들의 기량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하다. 손연재는 체격조건(키 165cm)부터 불리하다. 그러나 손연재 역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큰 경기에 유독 강하다. 올림픽 포디움에 올라서는 한국 리듬체조 선수가 탄생한다면, 그 첫 번째는 손연재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시아 정상의 자리도 지켜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손연재의 라이벌로

똥똥한 선수는 중국의 덩썬웨이(22). 그러나 리듬체조 관계자들은 “2년 뒤에는 일본선수들을 더 견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대회 개인전 5위와 6위에 오른 일본의 하야카와 사쿠라(17)와 미나가와 가호(17)가 그들이다. 특히 하야카와는 키(170cm)가 크고 유연성이 남다르다. 송희 SBS 리듬체조 해설위원은 “하야카와를 비롯한 일본선수들도 러시아에서 계속 전지훈련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선수들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기량이 올라오기 때문에 리우올림픽 때 방심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인천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최민지, 양수진, 김선우, 정민아(왼쪽부터)가 2일 인천 드림파크에서 벌어진 2014인천아시안게임 근대5종 여자 단체전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뒤 시상대에 올라 기뻐하고 있다.

■2일 인천AG 경기종합

양수진·정민아·최민지·김선우 여자 근대5종 사상 첫 금메달

육상남자 1600m 계주대표팀 한국신 은메달

여자 근대5종이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입맞추었다. 양수진(LH)-정민아-최민지(이상 한체대)-김선우(경기체고)로 구성된 대표팀은 2일 인천 드림파크에서 펼쳐진 2014인천아시안게임 근대5종 여자부 경기에서 합계 5120점으로 2위 일본(4760점)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단체전 금메달을 수확했다. 근대5종이 아시안게임에 등장한 2002년 부산대회 이후 한국이 따낸 첫 금메달이다. 정민아는 개인전에서 은메달도 추가했다.

성혁제(인천시청)-박봉고(구미시청)-박세정(안양시청)-여호수아(인천시청)가 이어 달린 계주대표팀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1600m 계주 결승에서 3분04초03의 한국신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세단뛰기의 김택현(광주시청)은 16m93을 뛰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녀세파타크로대표팀은 동반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임안수-박현근-정원택(이상 고양시청)-김영만-심재철(이상 청주시청)로 짜여진 남자대표팀은 부천체육관에서 벌어진 레구(3인제) 4강전에서 미얀마를 2-1로 꺾고 은메달을 확보했다. 김이슬-이민주-심수연(부산환경공단)-이진희(경남체육회)-박선주(전북체육회)로 이뤄진 여자대표팀도 레구 준결승에서 중국을 2-1로 눌렀다. 남녀 모두 3일 태국과 결승을 치른다.

복싱은 줄곧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4개나 확보했다. 김형규(한체대)는 라이트헤비급(81kg) 준결승에서 오이백 마마줄로노프(우즈베키스탄)에 3-0 심판전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라이트플라이급(49kg) 신종훈(인천시청), 밴텀급(56kg) 함상명(용인대), 라이트웰터급(64kg) 임현철(대전대)도 결승에 올랐다.

남자카바디대표팀은 중국 인도와의 준결승에서 25-36으로 패했지만 사상 첫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하키대표팀과 남자력비대표팀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각각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를 3-2, 17-14로 따돌리고 3위를 차지했다. 공수도 남자 67kg급의 김도원(울산진무도)도 동메달을 따냈다. 탁구 혼합복식 김민석(KCC)-전지희(포스코에너지)는 4강전에서 리호칭-지양니안(홍콩)에게 3-4로 패해 동메달을 보냈다. 남자단식 주세혁(삼성생명)은 준결승에 진출했다.

인천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클릭! 인천 | 3·4일 주요경기 일정

태권도, 3일 남녀4체급서 금메달 도전

보름 넘게 열전을 펼쳐온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4일 폐회식을 끝으로 45억 아시아인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 개막 15일째이자 개전절인 3일에는 ‘국제종합대회의 꽃’으로 불리는 남자마라톤이 열린다. 한국대표로는 심정섭(23·한국전력), 노시완(22·건국대)이 42.195km의 레이스에 나선다. 심정섭의 개인최고기록은 2시간14분19초, 노시완의 개인 최고기록은 2시간15분15초다. 객관적으로는 메달권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안게임은 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자마라톤에선 일본의 마쓰무라 고타이(28)와 가와우치 유키(27)가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 ‘메달 발’인 태권도는 3일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다. 여자 73kg급과 73kg 이상급, 남자 54kg급과 58kg급 등 4체급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을 가린다.

2002년 부산대회 이후 12년만의 아시안게임 정상을 노리는 남자농구대표팀은 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속직이란을 상대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란의 창과 한국의 방배가 맞부딪히는 일대 접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종목이 3일까지 일정을 마치는 가운데, 대회 폐막일인 4일 공수도, 정구, 탁구가 대미를 장식한다. 한국은 남자정구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정구는 한국의 효자종목답게 이미 개인전에서 풍성한 수확을 낸 만큼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싹싹이를 기대해볼 만하다.

인천 | 정지호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